

##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해설』에 나타난 자유의지 이해에 대한 논평

논평자 김완중

평상시 관심이 많았던 자유의지에 관한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이경직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논평자는 먼저 본 논문을 필자가 이해한 대로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 몇 가지 물음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는 본 글의 목적이 ‘자유의지 문제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p. 1)이고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자체와 씨름하는 편을 택하고자한다’(p. 1)고 밝히듯이 우르시누스의 텍스트 자체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발제자는 주로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제8문<sup>1)</sup>에서 우르시누스가 제시한 자유의지의 내용을 반론과 함께 논문 중반 이상까지(p. 11) 다룬다. 발제 논문 중반부 후반(p. 11)에서 인간의 사중상태의 자유의지(타락 전과 타락 후, 중생 후, 그리고 영화로운 상태의 자유의지)를 다룬다. 여기에서 중생후의 자유의지 상태와 관련하여 거듭난 사람이 그 상태에서 행하는 선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114문을 논문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다.

발제자에 따르면 우르시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 가르치는 목적이 “사람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보게” 만드는데 있음을 잘 보여 준다’(p. 2)는 것이다. 그래서 발제자는 ‘자유 의지를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중에 어느 하나를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외적 자유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자발적으로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내적 자유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과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p. 14)고 이런 점에서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일반적 접근과 큰 대조’(p. 2)를 이룬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일반 철학에서 다루는 A라는 사람이 B이라는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어떤 선행 조건이나 인과법칙에 의해 수행되거나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모든 선택과 사건은 선행 사태나 사건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필연성이라는 결정론(determination)이 양립가능 할 수 있는 양립가능주의(compatibilism)와 결정론을 부정하고 자유를 긍정하는 양립불가능이란 자유의지론(libertarianism)을 다루지 않

1) 18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Q18.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전적으로 어떤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모든 사악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Ans.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정말로 그렇습니다.

설명.

자유의지에 대하여.

I. 의지의 자유 혹은 선택의 자유로운 능력은 무엇인가?

II. 하나님에게 있는 자유와 그의 합리적 피조물, 천사나 인간에게 있는 자유 사이에 존재하는 구별은 무엇인가?

III.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있는가?

IV. 어떤 종류의 의지의 자유가 인간에게 있는 가; 혹은 4중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는 가?

는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필자가 보기에 물론 하나님의 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작정(일반 철학에서의 결정론?)을 따르며 자유의지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양립가능주자인가? 양립가능하다면 그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는가?의 물음 인 것 같다. 그래서 논평자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 논문을 논평한다.

### 1. 자유의지(의지의 자유 혹은 선택의 자유로운 능력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의지의 자유가 인간에게 있는 가; 혹은 사중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는 가?)

우르시누스는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는 있다고 주장한다.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고 오직 악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그 선택을 자의적으로 원하기 때문이다'(p. 2). 악만을 선택할 지라도 그가 그 선택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억압과 반대되는 능력'(p. 3), '강제 없이 자의로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능력'(p. 3)이 자유이다. '강제 없이 자의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롭다'(p. 3). 우르시누스의 자유의 의미는 "속박과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p. 2)이다. 우리가 일상 아침에 밥을 먹을지 씨리얼을 먹을지를 선택하는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의 의미에서 자유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외적 자유로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내적 자유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p. 3).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악이든 선이든 강제나 강요 없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피조물의 자유의지 사이의 공통점이다. 그래서 '양자 모두 강제 없이 내적 활동에 의해서만 대상을 선택하거나 거부 한다'(p. 3) '양자 모두 비록 자신의 내면적 성향이 선호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을 원하거나 내면적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일을 미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면적 성향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기운다는 뜻이다'(p. 3). 타락전에 비해 타락후 자유의지가 불완전하지만 외적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의지가 있다. 우르시누스의 자유개념에 따르면 선과 악을 동등한 상태에서 선택하지 않을 지라도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운데, 왜냐하면 하나님도 선과 악을 동등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오직 선만 선택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동등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로 이해하는 경우 하나님은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결과는 낳는다(p. 7).

우르시누스는 어느 정도만큼의 인간의 자유의가 있는지 사중상태를 구분한다. ①타락전 상태-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성향과 의지가 있다(p. 8). ②타락후의 상태-타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다는 점에서는 자유롭지만 그의 선택 대상은 언제나 악이다. 이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기 때문이다(p.8). ③중생이후의 상태-새롭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성향과 능력이 있지만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상태(p. 10). ④영화롭게 된 상태-완전한 자유의지, 오직 선만 행할 수 있는 자유(p. 13). 오직 선한 것만 사랑하고 선택한다는 점에서, 즉 악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담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선을 언제나 원하고 선택하는 지속성과 불변성 포함(p. 14).

## 2. 하나님의 작정<sup>2)</sup>

‘하나님의 자유의지와는 달리 피조물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신학자 우르시누스는 “피조물들의 의지와 행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의 뜻에 의존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 한다’(p. 4).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p. 4). ‘하나님이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를 다스리’신다(p.5). ‘피조물의 자유의지는...그분의 작정에 의존 한다’(p. 4). ‘하나님은 이성적 피조물의 지성에게 선택 대상을 제시하시며 선한 것을 선택하는 성향을 주신다’(p. 5).

## 3.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의지의 양립성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있는가?)

1) 그렇다고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르시누스는 하나님께서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를 움직이시는 방식은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성적 피조물의 본성적 성향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피조물은 선한 대상과 악한 대상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선한 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p. 4). ‘이성적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확보하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p. 5).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간섭이나 작정을 선행조건이나 인과관계로 간주한다면 결정론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둘 동시에 가능 할 수 있는 가? 이에 대해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이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를 다스리는 방식이 **강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성적 피조물은 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p. 5) 피조물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그분의 작정에 의존하지**’(p. 4)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다’(p. 5). 하나님은 피조물의 지성에게 선택 대상을 제시하며 선한 것을 선택하는 성향을 주신다(p. 5). 이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간의 판단과 성향을 정하신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한다. 그러나 우르시누스는 그 일을 수행하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판단과 성향에 따르지만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대상을 선하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성향에 따라 그 대상을 선택 한다’(p. 5).

2) 하나님께서 인간의 판단과 성향을 정하신다면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당시의 반박에 대해 타락 이전의 상태에서처럼 하나님의 제안과 영향력을 동의할 수 있고 저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능력 자체가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 자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선행과 관련하여도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셔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다. 우리가 죄만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선행으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p. 10). 그러나 인간의 경우 책임

---

2)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Q7: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Ans: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전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원인이 인간의 시조에서 생겼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 있다고 본다.

3)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인간 자신의 다스림도 받는다는 점에서 자유롭다’(p. 7). ‘자유롭지 못한 의지는 다른 존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정작 자신의 다스림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p.7). 이런 점에서 ‘인간의 의지는 도덕적 책임을 지기에 충분할 정도로 자유롭다’(p.7) 이에 대한 반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자체가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물음에 우르시누스는 “자의적으로”, “자기 의도대로” 행할 때에만 자유롭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p.8)고 주장하며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p.8)고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p.8). 타락으로 인간의 의지는 선을 선택할 수 없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속박과 부자유 속에 있다’(p.8)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음으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다.

4)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sup>3)</sup>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더라도(계시된 뜻) 하나님 뜻의 비밀스런 작정(숨겨진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뜻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진다.

5) 악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닌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작정을 알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p.6). ‘악한 사람은 비록 그의 선택과 행동(자유의지)이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로 인해 그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p.6). 1),2),3),4),5)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우리의 판단과 성향을 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작정(결정론)과 그 작정 속에 인간의 의지가 있지만 강제 없이 인간의 의지가 스스로 그 작정된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르시누스의 자유의지 견해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양립가능하다는 양립가능주의인 것처럼 여겨진다.

(1). 논평자는 우르시누스의 글을 논평해야 할지 발제자의 글을 논평해야 고민스러웠다.

(2). 우르시누스의 견해를 따르자면 ①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의지한 것을 선택하지만 그 의지가 ②강제나 억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속고를 통해 수행하는 행위라면 ①은 결정론의 의미이고 ②자유의지의 의미가 아닌가? 아니면

3) 4번째 반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하나님의 의지(뜻, will)을 저항하는 것은 그 의지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인간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한다.

3)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게 지배되지 않는다.

대명제1)는 만일 그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와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면 참이다. 그러나 소명제2)는 단지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된 것으로 표현한다. 이는 하나님의 의지의 작정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의지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 조차에게도 승인되고 수행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②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宿命론이나 운명론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할 수 있는가?

(3).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외적 자유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내적 자유 중에 후자의 자유가 동일한 자유가 아닌가?

(4). (1)과 관련하여 물론 이경직교수는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자체와 씨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르시누스의 자유의지 이외에도 루터나 칼뱅, 조나난 에드워즈의 자유의지론의 의미와 비교하며 논의했으면 우르시누스의 자유의지 개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